

충남 지역관광의 발전을 위해 바라는 것들



김항자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 여름 이탈리아를 여행한 기회가 있었다. 그 중 세계자연유산마을인 친퀘테레와 ‘킷타슬로’ 연맹 도시인 오르비에토에 들렀다. 이곳들은 우리의 농촌 마을이나 도시보다 어메니티 수준이 높다. 그러나 이보다도 나를 감동하게 만든 것은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소박하지만 격이 있는 생활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관광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광매력물이 있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해 온 터라 그동안 생각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매력적인 지역을 방문하면서 충남의 지역관광이, 아니 우리나라의 지역관광이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았다.

시설, 콘텐츠, 커뮤니티의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지역관광 정책을 추진하자고 논의하다보면, 관부역할을 하는 랜드 마크가 필요하다, 보여줄 것이 적으니 테마시설을 개발해야 한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니 펜션을 조성해야 한다 등으로 귀결된다.

결국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관광시설부터 만들고 보자는 식이다. 정작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 어떤 체험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제공할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 즉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는 매우 적다.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지역의 작은 마을에서는 현대화된 시설을 조성한다고 해도 규모면에서나 집적화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트렌드의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시설에 걸맞은 콘텐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나 프로그램도 빈약한 실정이다.

지역관광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배우가 되기도 하고 관객이

되어야 하나 우리의 지역관광에서는 '주민'은 집을 나가버린 상태가 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가꾼 꽃밭, 주민들의 밥상을 손님과 함께 하는 것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이 시작될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있다. 이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말이다. '한 걸음'하면, 매우 미미한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사전적으로는 '쉬지 아니하고 내쳐 걷는 걸음'을 의미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나 지역관광에 적용해 보면, 기실 우리는 한 걸음이 아니라 백 걸음, 오백걸음부터 시작한다. 주민들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관광지, 숙박시설, 관광안내센터부터 조성한다. 심지어 지역관광을 진흥시킨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희지 등에 관광시설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관광시설이 정말 지역의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역관광의 성공이라는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집 앞 청소, 꽃밭 가꾸기, 주민공동사업 등과 같은 '한 걸음'이다. 그 소중한 '한 걸음'이 없으면 지역의 경관이 깨끗해지지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작은 마을들을 여행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창틀에 놓인 예쁜 화분들,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길 등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끼있는 끈에게 맡겨라..

'관광' 여행을 많이 해보았거나 TV 여행프로그램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저마다 관광전문가라고 한다. 또한 사람들은 '관광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쉽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했다. 그러나 사실 관광 분야는 결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여러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관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다. 대답은 '끈에게 맡겨라'이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등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짐꾼인 셰르파와 동행해야 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숨이 가빠질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오리농업과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면 '오리박사'라고 할 수 있는 '농부'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끈'이란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속어로 하는 말이지만 진정 전문적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 지역관광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끼' 있는 '끈'을 찾아내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